



◇소를 타고가는 달마'를 형상화한 작품 '소'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점원 교수.

옛 서민들 손때묻은 생활소품

12支 동물로 환생

이점원교수 '열세동물의 세상' 조각전 10월15일까지



◇넉넉한 어머니를 박달석으로 조각한 '기다림'.

사람 소재로한 돌조각도 함께 전시

'밥주걱이 원숭이의 혀로, 물레는 토끼의 눈으로, 다듬이는 개의 눈으로, 가래는 쥐의 농기구로 다시 태어났다.'

10월 15일까지 서울 삼청각 일화당에서 '열세 동물들의 세상'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는 이점원 동국대 교수의 눈에는 옛 서

민들의 손때 묻은 생활소품들이 12지 동물들의 장기(臟器)로 보였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 등장하는 12지 동물들의 신체 주요 부위가 지게, 물레, 다듬이, 질매, 바가지, 부러진 장고, 가래 등의 오브제(물체)로 만들어졌다. 그냥 내버려두면 각자 낡고 오래돼 슬플

가 없는 물건들이지만 이 교수에 의해 하나의 또다른 의미(의)로 환생된 것이다. 전시중인 뱀(지게+철), 돼지(어물통+철), 양(바가지+부러진장고+철의자), 쥐(가래+자연목+다듬이), 토끼(물레+자연목), 용(질매+다듬이+소나무+철), 소(의자+자연목+철), 원숭이(자연목+철) 등 각각 이질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전통과 현대의 오브제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일컫게 감상하려면 이들의 구조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알고 난 뒤 전시회장에 가서 비교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사전예습을 통해 복잡 감상을 하고나면 작가의 해학성과 독창성에 혀를 내두르는 감탄사를 연발할 듯 싶다. 또한 평소 무의식적으로 바라보았던 물건들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창의력을 불러 넣는다면 훌륭한 새생명으로 다시 탄생시킬 수 있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다. 그만큼 이번 작품들은 한국적인 전통의 미감과 미의식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일종의 '창의 창안 작품'인 셈이다.

12지 동물 이외에도 야외전시장인 아래마당에서는 오석, 마천석, 해인석 등 순수한 국산 돌로 제작한 돌조각 10여점이 전시돼 있다. '누워있는 여자', '울엄마', '가족', '한국인', '사우나' 등이다. 작품들 대부분이 섬세하고 정교하게 보다는 큼직큼직하고 선이 굵다. 하지만 강한 남성미보다는 부드러운 여성미가 느껴진다. 특히 은은한 미소와 언제 안겨도 편안할 것 같은 넉넉한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이 흐롤 형상화된 '울엄마'는 고향에 두고온 어머니를 연상시킨다.

김주일 기자 jim@buddhapia.com



◇영화 '봄, 여름...'에서 동승과 노승님이 나뭇배에서 대화하고 있다. 배경 뒤편으로 암자세트가 보인다.

동승 성장과정·업장소멸 그려

김기덕감독 신작영화 '봄·여름·가을·겨울...'

광주국제영화제 개막작품으로 첫선

김기덕 감독의 신작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LJ필름, www.springagain.co.kr)'은 사계절을 배경으로 동승의 성장과정과 업장소멸을 그린 영화다.

영화의 배경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봄 여름...'에는 불교적 철학과 감독 개인의 인생성찰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업적적 감독'으로 알려진 김기덕 감독의 이전 작품에 비해 이번 신작은 '나쁜 감독의 좋은 영화'라는 카피문구처럼 아름다운 영상과 잔잔한 배경음악이 두드러진다. 특히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4색으로 변하는 호수와 산세의 풍경은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낸다. 또 영화

를 위해 주왕산국립공원 내 특별제작한 '호수 위를 부유하는 사할'은 영상미의 완성을 더한다.

이 영화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17일, 스위스에서 열린 제56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청년비평가상' 1등상과 함께 국제시네마클럽연맹(FICC)의 '둔키호테상', '국제예술영화관연맹(CICAE/ARTE)상',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 등 4개상을 수상했다.

'봄 여름...'은 9월 2일 기자시사회를 거쳐 19일 개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8월 22일 제 3회 광주국제영화제의 개막작으로 관객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한성희 기자

'현실과 가상·과거와 현재의 왕래' 표현

경기광주 영은미술관 '공간의 여행展' 열려

경기도 광주 영은미술관이 10월 5일까지 기획한 '공간의 여행'전은 공간과 시간의 이동, 나아가 현실의 시공을 뛰어넘는 사이버 세계로의 여행까지를 포함한 '총체적인 이동'을 다루고 있다.

전시는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 이동인 현실과 가상의 이동, 과거와 현재의 왕래는 물론 자아와 타자, 미술에서의 장르와 장르 간의 이동과 소통도 주제로 삼고 있다. 참여 작가들은 이 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해 작업한 김나영, 김아타, 김주연, 김형대, 방해자, 육근병, 윤영석, 정소연, 최지만과 대만 작가 탕황첸(湯皇珍) 등 10명으로 회화 조각 설치 사진 영상 퍼포먼스 등 60여 점을 내놓았다.

김아타는 작품 '니르바나'에서 인간의 생로 병사, 근원적 본능을 인체와 자연을 극도로 대비시킨 사진을 통해 드러내려 했다. 육근병은 단 천불 부처님이 마치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웅크리고 있듯이 나체의 인간이 거꾸로 매달



◇김아타작, '니르바나시리즈'.

려 있는 인간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화가 방해자는 자연과 우주, 인간의 내적 교감을 투명한 빛을 그려낸 회화로 표현했으며, 김형대는 캔버스에 색을 겹쳐 칠한 뒤 그 위에 우리의 전통 모시나 비단 같은 얇은 베일을 드리워 보는 이를 이득하고 근원적인 풍경으로 여행하게 만들고 있다.

김주연은 영은미술관 주변에 버려진 자연물에서, 김나영은 작업실에 끈끈이를 매달아 우연히 포착하게 되는 사물들에서 우연과 필연의 만남을 다루었다.

탕황첸은 실제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 발견한 오브제와의 소통을 주제로 한 비디오와 설치를 선보였다.

윤영석은 나프탈렌으로 정교하게 인체의 뇌를 조각해 시간이 흐르면서 소멸되는 기억, 후각을 통해 인지되는 기억의 이중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육근병은 인간의 눈을 모니터에 담은 비디오 설치 작업을 통해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대상으로서 주제와 객체가 뒤바뀌는 상황을 제시했다. (031)761-0137 김주일 기자

문화소식

4집음반 기념 콘서트 풍경소리, 문화일보홀서

이종만 '좋은벗 풍경소리' 대표는 8월 27일 오후 7시30분 문화일보홀에서 4집 발매기념 콘서트 '자유의 바람'을 연다. 찬불동요 대중화에 앞장서온 이종만 씨는 이번 콘서트에서 4집 음반에 수록된 '장동백이', '음악이 생의 전부' 등 10여곡을 연주한다. 또 이별의 슬픔을 주제로 원성 스님이 작사한 '애별리'와 '자유의 바람' 등 찬불가 3곡도 부른다. (02)723-9836.

불교문화센터 실기반생 흥익대서 첫 종합회원전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문화센터 실기반 수강생들이 '제1회 종합회원전'을 갖는다. 8월 27일 까지 흥익대 대학로캠퍼스 서울국제디자인프라자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140여명의 회원들이 150여점의 개공, 불화, 단청, 서예, 민화, 사경, 서양화, 유화, 문인화, 사군자 작품을 선보인다. 한편 내년 5월에는 몽골 고려사에서 한국불화전시회도 열 계획이다. (02)703-0108.

방송 프로그램 안내. BBS 불교방송, Br TV, ch 32. 06:05 불교강좌, 10:05 BBS신행상담실, 11:05 행복스튜디오에 황정원입니다, 14:05 네트워크 연결, 전국은 오늘, 16:45 불미나 동산. 27일 13:20 시가 있는 첫집, 28일 08:30 정세체의 선석건립, 29일 17:30 정월초파일의 오늘 좋은 날, 30일 09:20 설수진의 러빙유, 31일 14:10 최완수의 불교문화 바로알기, 1일 08:30 명상으로 하는 태교와 육아. 아이리이트: 불교방송, 불미나 동산(9월 1일 16:45-17:00)=월요일 시간에는 부처님 십대 제자에서부터 성철스님까지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안겨준 스님들의 이야기 '스님 스님, 우리 스님'과 어린이들의 해맑은 목소리로 감상하는 불교 동시 '동시산책' 등의 코너가 마련된다. 불교텔레비전: 설수진의 러빙유(8월 30일 09:20~) 80년대 경검고무신과 단발머리로 안방극장을 장식했던 드라마 '간난이'의 주인공 김수양을 만나 본다.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색),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색),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철보), 내호함 (도자기),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염청 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매동승복 직원일동- 조끼, 우의, 바지, 두루마기, 모직(50%), 광목, 순면(무늬있는 먹물). 해동승복 대구광역시 동구 신현 4동 399-1 TEL: (053)741-8131 FAX: (053)741-8132 H.P: (011)549-8130 ※ 직역 대리점 모집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 내릴 때 무릎이 쭈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 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민속의학자 권재우 응(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